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0년 9월 15일

제 39 호

- 발행인 : 차인태 • 편집장 : 황인우
- 편집인 : 김규홍 김창욱 유지현 윤지영 이현우 채영신
- 주 소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070-7501-3842

코로나19로 방송협회 주최 방송의 날 축하연 무산 차 회장, 방송 100년 기리는 축하 메시지 보내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차인태(전 MBC) 회장

한국방송협회(회장 MBC 사장 박성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제57회 방송의 날 축하연 행사를 취소했다. 이에 아나운서클럽 채영신 사무총장이 8월 24일, 전체 카톡방에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라. 내년 행사에 모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긴급 공지했다.

차인태 회장은 방송의 날 전날인 9월 2일, '올해 방송의 날을 특별히 기억하자' 는 의미에서 카톡방에 다음과 같이 축하의 글을 올렸다.

'9월 3일은 방송의 날입니다 그리고 방송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20년 미국 피츠버그 KDKA가 중파 1kw로 첫 전파를 Broadcasting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 JODK 경성방송이 출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방송인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방송의 날 행사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회장 주재 임원 대표자 회의 소집 문화 탐방 등 클럽 운영 방안 논의

아나운서클럽은 코로나19 비상 시국에서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례 모임을 일체 중단하고 있다.

대신 차인태 회장이 7월 8일 정오 서울시 종로구의 한정식 집에서 임원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다.



"다 모일 수 없어 대표로 한 분씩만 오시라 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소모임에서 이후재 감사, 원종배 부회장, 채영신 사무총장, 이병혜 운영위원, 황인우 편집장 등 6명의 참석자들은 점심을 먹으며, 3월부터 순연된 정기 총회의 안건과 결산 내역 검토,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개최 장소 선정, 가을철 문화 탐방 행사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관중 없이 열려 <SBS스페셜> 이큰별 PD 대상 수상 아나운서상 정세진 내레이션상 김영옥



올해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객·취재진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좋은 방송의 영향력은 여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4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9월 3일 KBS 이재성, MBC 박연경, SBS 조정식 아나운서 사회로 열려, 9월 10일 오후 2시 50분부터 MBC를 통해 녹화 방송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 "방송은 코로나19에 맞선 제2의 방역 당국이었다. 정부는 우수한 콘텐츠로

문화 영토를 넓혀가는 방송 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방송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국민에게 방송 콘텐츠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 바라며,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방송대상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판한 217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24편의 수상작과 19명의 개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름 없는 의인의 삶을 소개해 큰 울림을 준 <SBS 스페셜-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돌, 용현>으로 대상을 거머쥔 이큰별 PD(사진)는 "이 영광스럽고 무거운 상의 의미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용현 선생님께 우리 사회가 보내는 뒤늦은 헌정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건보(제주MBC) 아나운서가 연출한 <제주어 5분 토크쇼>가 지역 교양 부문 작품상,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사기획 창>을 진행하는 정세진(KBS)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상, 아나운서 출신인 탤런트 김영옥(전 KBS) 회원이 EBS <건축 탐구 집>으로 내레이션상, <전국노래자랑>의 최고령 MC 송해가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 제3면

더없이 완벽한 가치를 더 앞선 열정으로 깨우는 것,
바로 **다리**가 이끌어 갑니다.

www.dalee.co.kr

주요인사 **다리**

본 사/제1공장
경기도 사.시 군자천로 185번길 78 (영광동, 1288-8) 시흥공단 2다, 209
TEL : 031-498-9600 FAX : 031-197-9600
영업본부/기술연구소 TEL : 030-905-7000

해외법인
Ho Chi Minh / DALEE Vietnam Head Office TEL : 84 28 7300 9600
SAYG-16-10, The Sun Avenue, No. 28, Mai Chi Tho, An Phu, District 2, HCMC
Fax: +84 28 3836 3503

Hanoi / DALEE Vietnam Branch Office TEL : 84 24 300 9600
Ba Diem 2 Street, Bac Lan, Ba Diem, Hoc Mon, HCMC / FAX : 842837186413
Vung Tau / DALEE Vietnam Factory TEL : 84 25 4398 9600
Lot 54, D.02 Street, Chau Duc IP, Suoi Nghe, Chau Duc, Ba Ria - Vung Tau

DALEE CORPORA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Group

칼럼

길은 하나다

방송의 날이 다시 잔칫날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김창욱(전 MBC)

아나운서국장
대전MBC 사장
제주MBC 사장 역임

기울어가는 친정을 바라보는 출가한 딸의 심정. 무릇 친정이 잘 돼야 마음이 편하고 시대에서도 면이 서는 법인데..... 방송의 날을 맞아 흔들리는 지상파 방송을 바라보는 회원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지인들이 “요즘 방송 왜 그래?”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딱히 할 말이 없어 적당히 얼버무리며 ‘차차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제는 묻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포기한 걸까요? 지난 수년간 ‘방송을 정상화’ 한다며 바람 잘 날 없었는데, 살림살이는 날로 어려워지고 시청자의 외면은 도를 더해갑니다. 이미 떠난 몸이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지켜보자니 답답할 뿐입니다.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의 파괴적 영향에 대한 경고는 2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상파 방송사 구성원들은 미디어 시장의 거대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방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방송의 존재 틀인 ‘계속 기업’ 과 본질인 ‘사명’ 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절박한 목표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사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송 철학의 차이, 정파적 이해 등 다양한 연유로 구성원들이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방송의 재정적 토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미디어 시장의 주도권을 모바일에 내주고 생존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방송사는 적자가 쌓여 구 사옥 매각 대금 3,000여 억 원이 곧 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시청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청 시간대 지상파 방송 시청률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메인 뉴스 시청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0년 사이 경쟁 격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지상파의 추락은 충격적입니다. 스스로를 우물 안에 가두고 시대와 시청자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방송의 핵심적 요소인 공정성의 후퇴입니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작년 10월 한국언론학회 회원 430명 (종합뉴스 제공 5개 방송, 종편, 종합 일간지 등 15개 미디어 소속)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시사 보도 부문 공정성은 종편(JTBC), 뉴스 전문 채널(YTN, 연합뉴스TV)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대적인 공정성 점수도 전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시절 공정 방송을 외치며 격렬한 파업을 벌였던 방송사 노조의 보고서마저도 ‘자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공정성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국민과 시청자이며, 우리만의 정의, 우리만의 공정성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의 관심과 신뢰를 잃으면 방송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구성원들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방송은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사명을 잊지는 않았는지, 시청자를 편 가르고 보고 싶은 시청자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우리만의 공정과 정의로 세상을 재단하고 심판하지는 않았는지, 험난한 미래를 헤쳐 나갈 용기와 능력은 있는지.....

이제 과거의 인식, 태도, 관행, 제도 등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대다수 시청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송을 할 때 떠난 시청자는 박수치며 돌아올 것입니다. 방송의 날이 다시 잔칫날이 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제47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및 수상자

작품상

- 뉴스보도: SBS <8뉴스> ‘라임사태 관련 청와대 관계자 로비 의혹’
- 시사보도: KBS <시사기획 창 - 밀정>
KBS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지역뉴스보도: KNN <뉴스아이 - 인구는 사람이다>
- 지역시사보도: 대구MBC <KAL858기 실종사건>
- 생활정보: KBS <6시 내고향 - 내고향 상생장터 함께 삽시다>
MBC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 문화예술교양: EBS <다큐프라임 - 뇌로 보는 인간>
- 사회공익: EBS <다큐프라임 - 시민의 탄생>
- 지역교양: 춘천MBC 16개 지역 MBC 공동기획 <농업이 미래다>
제주MBC <제주어 5분 토크쇼 - 곱양 몰라 써봐사주> 20부작
- 다큐멘터리: KBS <다큐 인사이트 - 모던 코리아>
CBS <조선인 전범 75년 동안의 고독>
- 지역다큐멘터리: 광주MBC <이름도 남기없이>
대구MBC <보수의 섬>
KNN <뜨거운 피로 외친 광야의 노래, 독립군 랩소디>
- 어린이: EBS <뭐든지 뮤직박스>
- 드라마: KBS <동백꽃 필 무렵>
- 예능버라이어티: SBS <맛남의 광장>
- 음악구성: KBS <클래식FM 불멸의 베토벤>
- 연예오락: KBS <별 헤는 밤>
KBS <와이파이 삼국지>
- 지역오락: KNN <섬마을 할매>
MBC경남 <79년 마산>

개인상

- 공로: 송해 - KBS <전국노래자랑>
- 지역방송진흥: 대구MBC 허문호 <숨: 노래에 새긴 한의 기억>
- 보도기자: MBC 박윤수
<뉴스데스크>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실체’
- 카메라기자: G1 유세진
단독 취재 ‘대문어 산란장 부서지고 나뿔굴고’
- 아나운서: KBS 정세진
<저널리즘 J> <시사기획 창> <특집다큐 특>
- 진행자: 배철수 - MBC <배철수의 음악캠프>
- 프로듀서: MBC 김태호 <놀면 뭐하니?>
- 미술: SBS 이용탁 <스토브리그>
- 영상그래픽: SBS 소은석 <녹두꽃> <낭만닥터 김사부 2>
- 조명: KBS 김민호 <아세안 판타지아>
- 기술진흥: KBS 박성춘 ‘티벳 서비스 운영’
- 영상촬영: KBS 김승민 <23.5> <위험한 약속>
- 음악: EBS 황현성 <저세상 ASMR>
- 작가: 임상춘 - KBS <동백꽃 필 무렵>
- 내레이션: 김영옥 - EBS <건축탐구 집>
- 연기자: 강하늘 - KBS <동백꽃 필 무렵>
- 예능인: 펑수 - EBS <자이언트 펑TV>
- 가수: 방탄소년단 - SBS <인기가요>
- 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 EBS 박재영 PD <자이언트 펑TV>

👑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

라디오 지역 교양 부문 작품상

〈제주어 5분 토크쇼 - 곶양 몰라 써봐사주〉 20부작 연출
(말해줘도 몰라요 써봐야 알죠)



지건보(제주MBC)

20년차 제주도민이지만 아직도 제주어는 참 어렵습니다. 제주도민들도 점차 제주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들은 제주어를 외계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 자체의 어려움은 제주어에 내재된 제주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조금씩 알고 나면 저절로 득어得語의 경지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번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주어와 표준어를 비교 체험하면서 〈무자막 버전〉과 〈자막 버전〉의 영상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해, 제주어의 말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미디어에서도 제주어의 가치와 활용이 더 빛나길 기대합니다.

아나운서상

〈저널리즘 토크쇼 J〉 진행



정세진(KBS)

1997년 1월 KBS 본사 벽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펴 듯이 기뻐했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2008년 이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제가 2020년 KBS 아나운서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마음을 잡아주신 이형걸 KBS 아나운서 실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은 저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그것이 항상 원동력이 됩니다. 배움의 자세로 좀 더 부지런히 달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레이션상

EBS 〈건축탐구 집〉 해설



김영옥(전 KBS)

“상을 받는다는 건 칭찬이니까 좋지요. 특히 내레이션이라면 다르잖아요? 아나운서를 했으니까요.”
그렇다! 그는 아나운서 출신이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 무대에 서 큰 상을 받았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인 HLKZ-TV가 개국하며 탤런트로 활동하다가 방송국이 화재로 문을 닫게 되자 KBS춘천 5기 아나운서 모집에 지원, 1959년 8월에 입사한다.

“서울 태생이지만, ‘춘천이면 가도 되겠다’ 싶었어요. 서울에서 교육하러 오신 최계환 선배님, 손석주 당시 춘천 방송과장님으로부터 자고자字高低와 방송인의 자질에 대해 배운 것이 지금껏 큰 도움이 되고 있지요. 〈9시 뉴스〉를 비롯해 정오 음악 프로그램, 김동인의 장편 소설 〈운현궁의 봄〉 연속 낭독까지, 인정받으며 재미있게 방송했으나 8개월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1년 후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신분의 박봉으로는 방세와 생활비도 빠듯했던 데다가, 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다. 퇴사 3개월 후 기독교방송 5기 성우로 재출발해 MBC 성우를 거쳐 탤런트로, 영화배우로 지금껏 쉬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에도 KBS 〈다큐 공감〉 등에서 내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연기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제가 느낀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려 해요. 상대방과 동화되어 공감하는 것이지요. EBS 〈건축 탐구 집〉의 주인공들은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다 순수하고 배울 점이 많더군요. 사실 전 누가 시키면 했지, 도전정신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게으르고...”

참고로, 대학 동창생이자 춘천방송국 동기인 남편 김영길(전 KBS)은 물론 오빠 김순환(전 MBC), 동생 김영자(전 MBC)도 아나운서로 활동한 아나운서 가족이다.

글 / 편집장 황인우(전 KBS)

TALK

낙수

누가 이 아나운서를 모르시나요?



최윤락

어린 시절... 60년대 초, 저의 초·중학생 시절 정도로 기억됩니다. KBS 라디오 저녁시간대 <희망의 등대>란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병상에 누워 지내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듣기로 시그널 뮤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척 재미롭고 약간 몽환적 분위기! 곡의 제목은 무엇이며, 도대체 무슨 악기 소리일까?’ 오랜 세월이 흘러 곡명을 확인하면서 무척이나 기뻐고, 악기 이름이 ‘하와이안 기타’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행하던 여성 아나운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어느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신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 진행 아나운서가 어느 분이셨는지 아시는 선배님이 계시면 이곳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인공께서 직접 이 글을 읽으셨다면 더욱 기쁜 일이고요. 그 시절 그 프로그램, <희망의 등대> 시그널 뮤직 제목은 ‘Moana Chimes(모아나의 종)’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기억나시는 선배님들께 그 곡을 선사합니다.
- 음악 동영상



이보길

환자는 아니었지만 저도 즐겨 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을 들으니 당장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아주 포근하고 정겨운 소리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아나운서들을 동경하던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홍

어찌하야 낭만파 최윤락 선생께서는 이 좋은 음악을 올리시어, 소인을 추억에 잠겨センチ멘탈하게 만들어 놓습니까요! 방금 2분 42초 짜리 음악을 몇번이나 감상하면서 낭만 KBS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배님이 누구였는지 여영 생각이 안 나는군요! 분명 어느 분이였는지 곧 알게 되겠지요?



김경숙

후배님들께서 궁금해하는 아나운서는 얼마 전, 지난 4월 2일에 선종하신 문복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입사하니 막 결혼하신 새색시이셨습니다. 참으로 미인이셨지요. 오후 4시 30분 <희망의 등대> 방송하러 들어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와 선배님은 인연도 깊어. 이웃에서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었답니다. 그래서 부음에 상실감이 컸습니다.



최윤락

아! 감격의 순간입니다. 김 대선배님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간이 4시 30분이었던 기억도 되살아났고요.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되셨다니 참 애석합니다. 추억을 되살리시며 즐겨 들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김규홍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김주혜 선배님과 통화했는데, 그 후엔 문 선배님의 후배인 김규은, 김주혜 아나운서 두 분도 방송을 하였고,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담당하였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궁금증이 조금은 풀립니다,



김경숙

그 당시에는 문 선배님만의 <희망의 등대>였고, 휴가 중일 때만 선배님 동기들께서 하셨습니다.

-6월 28일 카톡방 대화-



문복순 아나운서
KBS 라디오 <희망의 등대> 진행



회 | 원 | 동 | 정

황우겸(전 KBS)

한국JC 『70년 역사의 야사와 정사』 발간
유일한 창립 회원으로 뿌리 찾기 강조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시작된 한국 청년회의소(JC) 창립 회원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한국JC 뿌리 찾기 『70년 역사의 야사野史와 정사 正史』를 6월 20일 펴냈다. ‘한국JC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역사 추억의 무게를 내려놓고자’ 같이 JC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규홍 부회장에게 편집을 맡겨 자비自費로 발간한 책이다.

1964년 한국JC 제13대 회장, 1980년 한국JC 특우회 제2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회원들이 40세까지 JC 활동 후 JC 특우회에서 인연을 이어가며 평생 국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JC가 재도약하길 바라는 마음과, 부록에 최근 사상詩想과 그간의 JC 활동 사진도 담았다.

황우겸 고문은 1951년 KBS에 입사해 1963년 TV 방송 개국 시 아나운서실장을 끝으로 이직하고 대한항공 상무, 우신무역상사 대표를 지냈다.

유수호(전 KBS)

제천과 단양서 초중고배구대회 중계
코로나 이겨낸 체육관 중계로 평가받아



7월 30일, 코로나 사태로 운동경기가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남녀중별배구 선수권대회 중고남자배구 결승전을 중계했다. 코로나를 이겨낸 최초의 체육관 중계였고 이후 8월까지 많은 종목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셈이다. 특히 8월 16, 17일 단양에서 열린 초등배구대회를 직접 중계하기도 했으나, 10월에 다시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동면冬眠 상태라 중소기업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유수호 회원은 1969년 입사, 2005년 9월 정년 퇴임 후 바로 KBSN 방송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인터넷 중계방송 전문 isportstv 대표를 맡았다. 현역이 기피하는 종목 위주로 장내 중계 등 새 분야를 개척하며 50년째 5,000여 경기를 중계 방송 해왔다.

박선영(전 SBS)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대사 활동
EBS국제다큐영화제 폐막식 사회도 봐



7월 8일, 통계청이 10월 중순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로 배우 박서준과 함께 위촉되었다. 한편 박선영 회원은 8월 23일 밤 EBS 1TV를 통해 방송된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2020’) 폐막식 사회를 보았다. 박선영 회원은 2007년 SBS 15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 시사교양,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다 지난 2월 퇴사 후 SM C&C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박선영 회원은 8월 23일 밤 EBS 1TV를 통해 방송된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2020’) 폐막식 사회를 보았다. 박선영 회원은 2007년 SBS 15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 시사교양,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다 지난 2월 퇴사 후 SM C&C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오미영(전 KBS)

방통심위 방송언어특위 위원장 연임
장승철(전 CBS) 최재혁(전 MBC) 강성곤은(KBS) 위원



방송언어특위 진상욱·송차남 위원, 오미영 위원장, 방통심위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 방송언어특위 장승철·강성곤·이종대·최재혁 위원 (왼쪽부터)

6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되어 2021년 6월 16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강성곤 KBS 아나운서실 방송위원,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송차남 전 전주 중앙여고 국어교사, 이종대 전 방통심위 기획조정실장, 이풍호 전 SBS 심의팀 국장, 장승철 전 춘천CBS 본부장, 진상욱 전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최재혁 전 제주문화방송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창섭(전 MBC)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출간
10년째 성경 66권 정독하며 쉽게 번역



“이제는 알 것은 알고 믿자”는 취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발간했다. 시대와 문화의 간극 대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 본문 번역상의 아쉬움, 우리말 어법상의 모순과 단어 선택의 오류 등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책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을 여러 본문에서 다르게 적어놓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창섭 회원은 전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신구약 성경을 녹음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쉬운 말로 정리하라’는 소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바로 실행에 옮겨 2011년 5월부터 우리말 버전(1937년 발행 신구약 포함) 10권, 영어 버전 5권, 스트롱코드(Strong Code) 히브리어, 헬라어사전, 성경 사전, 성경 지도, 성경 주석을 참조해가며 ‘입말’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신은경(전 KBS)

성신언론인회 제3회 취업 특강
코로나 대비 비대면 화상 강연회로 개최



성신언론인회 회장으로서는 후배들의 언론계 진출을 돕기 위해 세 번째 취업 특강을 마련했다. 9월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모교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110호에서 박지현(원주MBC)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다.

현장에 대학 방송국, 학보사, 영자 신문 등 언론 3사 학생만 참석하고 화상 회의가 가능한 ZOOM을 통해 200여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가한다.

정흥숙(전 MBC)

유튜브 개설, 유디체아카데미 중심으로
시암송 패션 음악 미술 등 활동상 담아



9월 들어 <Dr.Heungsook G Chung Phd.정흥숙 박사>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유디체아카데미를 이끌며 음악 감상회에서 펼친 시암송과 중앙대 패션디자인 교수로 정년퇴임 시 기념 작품전, 서양 복식사 특강을 비롯해, 그림사랑회·인사동사람들·대한민국현대미술총람회·현대미술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그린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이보길(전 TBC)

아들딸과 만드는 유튜브 <백년역사> 인기
일제강점기 등 근세사 자료 정확히 소개



6월 15일, 가족이 함께 한국 근세사 유튜브 채널 <백년역사(Century History)>를 개설했다. 작가인 아들 이창익이 구성·제작·편집, 미국 뉴욕에서 성악가로 활동

하며 한인 방송 K라디오1660에서 아침 와이드 프로그램 <오 해피데이>와 재즈 프로그램 <우 짝 쉬뻐> 제작·진행하는 딸 이지민(Jeemin lee)이 내레이션, 이보길 회원이 감수를 맡았다.

작품 중 일제강점기 상황이 많고 일본 구독자도 있어 일본어 자막도 넣으며, 당시 발행된 신문과 자료 등을 근거로 그릇되게 알려진 일본의 통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후원금



특별 발전 기금 내 주신분



우인욱
고 배덕환 회원 부인 10만 원

광고 유치



차인태(전 MBC)
(주)다리 150만 원

연회비

지영서, 이계행, 전영우, 이미선, 박용호, 이병혜, 반주원

축하합니다

공나현(울산FEBC) 9월 5일 법조인과 혼인
양현민(FEBC) 7월 21일 득남
김고은(FEBC) 7월 15일 득녀
박자연(광주FEBC) 6월 7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강성곤(KBS) 8월 9일 부친상
강은이(KBS광주) 7월 24일 부친상
서기철(KBS), 곽은주(전 KBS) 6월 13일 부친상, 시부상
이영재(KBS제주) 6월 7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원 9월 14일 SBS 퇴사
차현정 8월 7일 울산FEBC 퇴사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방 | 송 | 가 | 소 | 식



'2020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비대면 강의

초중학생 대상 '2020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 10주년을 맞아 '안녕 우리말, 마음은 더 가까이'를 주제로 정하고, 비대면 방송 강의와 실시간 유튜브 강의로 펼쳐지고 있다.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 구룡초 전주리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전국 300여 개 학교에 배포되는 비대면 방송 강의 프로그램은 도경완 아나운서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강사로 나선다.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신설



7월 6일자로 2TV 아침 방송 일부가 개편되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8시 뉴스 타임>을 통합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를 신설해, 강승화, 엄지인, 강성규 아나운서 진행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부에 걸쳐 방송한다. 특집처럼 꾸며진 금요일 방송은 이광용, 김선근, 박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이현주 TV <연중 라이브> 박소현 R <설레는 밤> 맡아

<연예가중계>가 7월 3일 <연중 라이브>로 돌아왔다. 이현주 아나운서가 맡아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이현주 아나운서가 잠시 진행했던 쿨FM <설레는 밤>은 박소현 아나운서가 이어받아 <설레는 밤, 박소현입니다>로 새단장했다.



뉴스와 프로그램 부분 개편



뉴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김상호 아나운서가 <뉴스투데이>(사진)에 합류해 새로운 분위기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또, 전종환 아나운서가 기존의 임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한다. 허일후 아나운서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MC를 맡았다.

아나운서 유튜브 <뉴스 안 하니?> 본부장상 수상

MBC 아나운서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 안 하니?>의 제작팀이 본부장 격려상을 수상했다.

전종환, 이재은, 김민호, 김수지, 이영은 아나운서가 올 2월 유튜브를 시작해 아나운서들의 일상과 매력을 보여주며 2만여 구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나운서팀 월드비전에 코로나19 후원금 전달

SBS 아나운서들이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내 취약 계층 돕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도서 전문 채널 '아나운:서점'의 수익금 일부를 월드비전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아나운:서점'은 교보문고가 선정한 좋은 책을 SBS 아나운서들이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송으로 현재 3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현경 수필집 『아무것도 아닌 기분』 발간



스포츠 캐스터, <열린 TV 시청자 세상> MC, 라디오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DJ로 활동 중인 이현경 아나운서가 수필집 『아무것도 아닌 기분』을 발간했다.

"나만은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생애 두 번째 사춘기를 맞이한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50대 여성의 일상 회복기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지망생을 위한 책 <아나운서 절대로 하지 마라> 펴내



아나운서부가 '지망생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펴내자'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고 <아나운서 절대로 하지 마라>를 펴냈다. 치열한 방송 현장과 거기서 느끼는 고뇌, 상처, 알 수 없는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나운서로서 행복해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인 MBC 차미연 아나운서가 추천사를 썼다.

채선아, 팟캐스트 <책플러스> 진행

채선아 아나운서가 입사 동기 조석영, 배운 PD와 함께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러스>를 시작했다.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영화나 드라마, 넷플릭스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는 팟캐스트로, 방송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담아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영선, 신설된 로컬 뉴스 <경인플러스> 맡아

7월 27일부터 지역성 강화를 위해 로컬 뉴스 <경인플러스>를 신설했다. 유영선 아나운서 진행으로 평일 오후 4시 20분에 방송된다.

최지해, 코로나19 극복 위한 <힐링 콘서트> 진행



6월 26일, <문화백신 코로나19 극복 힐링콘서트>가 최지해 아나운서 사회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친 시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무관중·언택트 콘서트로 열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되었으며 7월 12일 녹화 방송되었다.



문체부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 선정

TBS 아나운서팀이 제안한 '함께 써요! 쉬운 우리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아나운서팀은 제작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 연말까지 공공언어·교통언어 순화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명절·한글날 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한다. 우리말 퀴즈, 우리말 대회 등을 열어 120여 개 용어를 순화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나운서팀 방통심위 바른방송언어 특별상 수상

지난 6월, TBS 아나운서팀이 일본식 한자어, 잘못 쓰이는 교통 용어 등 방송 언어를 개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방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아나운서팀이 제작·진행하는 <우리말 고운말>은 지난해부터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행정용어, 공공언어 다듬기 캠페인을 벌여 왔다.

<네트워크 730> <킹슈맨> 등 TV 개편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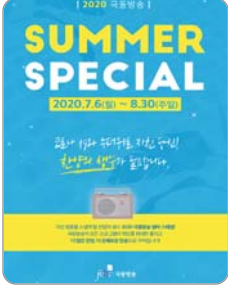


TV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자과 아나운서 2인 앵커 체제 저녁 프로그램 <네트워크 730>(사진)은 김상아 아나운서가 맡았고, 정오 <네트워크 12>는 최지은 아나운서가 단독 진행한다. 강지연 아나운서가 오전 9시 신설 프로그램 <킹슈맨>에, 새 단장한 <더룸>(월~목 21:30~22:30)에는 조현아 아나운서가 투입되었다.



전북·광주·전남동부·창원, 온라인 기독교문화 프로그램 진행



전북·광주·전남동부·창원극동방송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부흥회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여름 행사가 대거 취소된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미래학자와 <코로나19 내다보기> 특별 대담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미래연구소 최현식 소장의 특별 대담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내다보기 - 처음 만난 세계> 3편을 제작, 라디오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했다.



8월 성모승천대축일 맞아 프로그램 부분 조정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아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김지현 아나운서가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월~토, 8:00-10:00)을 맡아 DJ 겸 제작자로 다양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또 TV <오늘, 다시 주님께> (토 19:00 일 8:00, 22:00 월 21:05 화 8:00, 사진)를 진행한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라디오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 (월~토 6:05-8:00)을 다시 맡아 퇴근길 청취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또 가톨릭성모병원의료진과 함께 유튜브 채널 <마리아 건강TV> 영상 제작에 참여해 중증 질환과 치료법을 쉽게 전하고 있다.



서귀포 중계소 개국으로 제주 대부분 지역 가청권



8월 1일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미악산에 서귀포 중계소(FM100.5Mhz)를 개국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9월 9일 제주BBS 개국 이후 제주도 지역에 한정됐던 BBS 라디오의 가청권이 제주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이선희 아나운서가 제주 근무를 마치고 아나운서부로 복귀했다.

라디오 특별생방송으로 수재민 돕기 성금 모아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수재민 돕기 캠페인을 벌였다. 8월 20일에는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부처님의 자비를 온누리예>를 통해 성금 7,700만여 원을 모았으며, 직원들이 직접 수해 사찰을 방문해 수해 복구를 위한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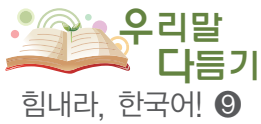
아나운서팀, 학교 미디어 특강 참여



2017년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학교 미디어 특강’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색다른 방식으로 학생과 만나고 있다.

각 학교의 스튜디오나 교실에서 청중 없이 강의하면 학생들이 교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비대면 강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강지영 아나운서(사진)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첫 주자로 나섰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콘텐츠에 담을 내용을 기획해 강의를 준비한 후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에서 컴퓨터로 보거나 원격 수업으로 보는 방식이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 새로운 특강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ㄷ’ 발음 5

“승객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학여울역”은 어떻게 발음할까?



김상준 (전 KBS) 부회장, 언론학 박사

먼저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음을 생각해 본다. [승개겨러분]과 [승갱너러분], [방청개겨러분]과 [방청갱너러분] 어느 쪽이 맞는 발음일까? 표준 발음법을 원용하면 두 번째 발음이다.

문법 용어를 빌린다면, [승갱너러분]과 [방청갱너러분]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음운법칙이 적용되면서 절음법칙과 음운첨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승객’과 ‘방청객’에서 절음된 후 ‘여러분’이 이어지는데, 절음 이후에 ‘ㅣ’나 ‘ㅣ’ 선행모음이 오면 ‘ㄴ’ 음이 첨가된다.

이와 비슷한 예를 표준발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준발음법 제7장 ‘음의 첨가’ 부분, 제29항에서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발음법 29항에서의 용례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내복약[내:봉약], 남존여비[남존녀비],

색연필[생년필], 녹막염[능망념], 영업용[영엄농], 식용유[시공뉴], 옷입다[온닙따]” 등이다.

‘승객 여러분, 고객 여러분’ 등은 우리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학여울역이 있다. 학여울은 현재 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는 아니다. 인터넷에서 학여울의 발음에 대한 질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하고 있다.

○	×
[승갱너러분]	[승개겨러분]
[방청갱너러분]	[방청개겨러분]
[항녀울력]	[하겨울력]

“‘학여울’은 ‘학’과 ‘여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제7장, 제29항을 참고하여, ‘여울’이 [녀울]이 되는, ‘ㄴ’ 첨가 발음을 상정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서는 학여울역에 대한 유래와 발음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지명은 대동여지도에 학탄鶴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지명의 ‘탄’灘을 여울로 풀어서 학여울이라는 지명을 역명으로 사용하였다. ‘학여울’은 ‘학’과 ‘여울’의 합성어로 분석되며, 두 단어 사이에 ‘ㄴ’이 첨가되면서 ‘학’의 ‘ㄱ’ 받침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기 때문에, 학여울역의 표준어 발음은 [하겨울력]이 아닌 [항녀울력]으로 해야 한다.

<<https://ko.wikipedia.org/>>

학여울역은 ‘학-여울-역’으로 나뉘지는 세 개의 어근語根이 합해진 합성어이다. 합성어 合成語, compound word)는 둘 이상의 어근, 즉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형태소와 형태소를 연결할 때는 하이픈(hyphen)이라는 붙임표(-)를 넣게 되어 있다.

학여울역과 같이 역의 이름이 ‘르’ 구개음으로 소리나는 곳은 서울역[서울력], 잠실역[잠실력], 반월역[반월력], 명일역[명일력], 함열역[함열력] 등이 있다. 부산역, 용산역, 신촌역 등에서의 역은 ‘ㄴ’ 구개음인 [노]으로 소리난다.

Zoom-in 뉴질랜드 한국어방송 해피월드TV 김운대(전 KBS) 대표

남쪽 나라에서 방송국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1977년 KBS 4기로 입사해 부산과 서울에서 근무하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중계방송을 마치고 바로 사표를 낸 후 뉴질랜드로 이민 간 김운대 아나운서. 43년째 마이크 앞에 섰다는 그가 최근 전체 카톡방에 방송 동영상과 근황을 전하며 회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받고 있다.

작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봄을 찾아서>가 한국방송전파진흥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11월 귀국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이 취소되는 바람에 서면書面 인터뷰를 신게 되었다. 6.25 사진전 개최, K-Pop 콘테스트 실시 등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온 그의 삶을 들여다 보자.

뉴질랜드 이민 생활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좋아서 온 곳이니깐... 시골 출신이라선지 시골을 좋아해요. 지금도 오클랜드 시내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 마음이 푸근해지고 참 좋아요. 아이들은 40이 넘어서 다 나가서 잘 살고 있지요. 큰아들은 호주에서, 작은 딸은 오클랜드에서 1시간 30분 떨어진 케임브리지에서 살아요. 돈 벌기가 좀 힘들 뿐이지 자연 환경이 쾌적하니까 좋아요. 돈은 못 벌었지만 아이들한테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돈 번 것이나 다름 없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희망이 외교관이 되는 거였어요.(안 되기를 잘 했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국을 알리고 싶었지요. 제 인생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이민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었나?

'뉴질랜드에 와서 뭘 할까' 여러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전 답사도 하지 않고 왔거든요. 마침 당시 어느 교회에서 1주일에 1시간씩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소수 민족이나 개인을 위해 제공해 주는 방송이었죠. 거기서 1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렵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즐겨 듣던 단파 라디오를 통해 KBS 뉴스를 녹취해 원고로 써서 방송하고 NHK를 수신해 원고를 만들기도 했지요. 라디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참 힘들었지만, 시간을 늘려 100% 생방송으로 하루 5시간씩 방송했어요. 다른 한국어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청취율은 최고였죠. 1994년부터는 상업방송으로 옮겨 시간을 사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민자들도 늘어나고 괜찮았지요.

그러다가 1997년에 일본인 <마사 세키와>를 만나 TV 방송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뉴질랜드에 일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 타이완인 <계리 창>과 홍콩인 <헨리 호> 등을 만나게 됐고, 이 4명이 한중일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TV 방송을 하기로 뜻을 모아 뉴질랜드 최초, 최대의 아시안 방송사인 '월드TV'를 설립해 2000년 5월 첫 방송을 내 보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다.

뉴질랜드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으니 돈이 많이 들어도 위성방송을 해야겠다 맘먹고, 뉴질랜드의 스카이TV와 계약했어요. 한국 2개, 중국 7개, 일본 1개 채널 등 10개 공중파로 전국을 커버하는 위성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다행이도 한국엔 2000년에 막 시작한 아리랑 TV가 있었고, TV에서 기와집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한국 프로그램이 그리웠던 시절이었어요.

일본은 NHK, 그리고 타이완과 중국의 비디오 테이프를 받아서 방송하다가 2003년 KBS에서 미국 LA로 송신하는 위성 프로그램이 뉴질랜드에서도 수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서 공급하자고 KBS 측에 요청했지요. 그 후 YTN이 위성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방송을 받기도 했고, KBS가 정식으로 국제방송을 시작하면서 10여 년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방송을 할 수 있었지요.

로컬 프로그램 중에는 뉴질랜드의 TV3라고 하는 민방의 1시간짜리 저녁 6시 메인 뉴스를 녹화해서 한국어와 중국어 자막을 넣어 4시간 후 방송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한국팀은 매일 저녁 번역하는 사람이 4명씩 나와 당일 뉴스를 번역해서 3시간 후인 저녁 10시에 한글 자막이 들어간 뉴질랜드 뉴스를 내보냈는데,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작업은 아마 20년 전에 KBS도 해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2016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채널 대부분이 위성 서비스를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가게 됐어요. 지금도 중국 채널 2개는 공중파로 남아 있기는 해요. 한국과 일본 채널은 공중파가 아닌 IPTV 인터넷 방송인데, 그 한국 채널 이름이 바로 '해피월드TV'예요. 방송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요.

월드TV의 직원은 처음에는 100명 정도였는데, 인터넷으로 전환한데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25명 정도로 줄었어요. 해피월드TV 직원은 달랑 3명이고 필요할 때마다 파트타임으로 보충하곤 해요.

프로그램을 소개해달라

시트콤 드라마 <김치국이 간다> <무작정 나라라> 한국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과 16년에 해외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트콤 드라마를 제작했어요.

2015년도 <김치국이 간다>는 한국에서 유학 온 고등학생 김치국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그린 것인데, 100% 현지인과 한국 교민, 중국인 등이 실제 역할을 맡아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었지요.

2016년도 <무작정 나라라>는 한국의 20대 여성 <나라라>가 뉴질랜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건너와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모두 자신의 경험을 드라마로 만들었기에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게지요.

6.25 참전 용사의 유해를 찾는 다큐 <봄을 찾아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전사자 중 유일하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봄'을 찾아나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전파진흥원에서 연말에 방송 제작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고 시상하는데, 작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봄을 찾아서>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답니다.

상을 받으러 오는 11월에 한국에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돼 매우 아쉬워요.

뉴스 <오세아니아 위클리> 대담 <해피 특특>



2015년 당시 존 키 총리와

호주에 한국인을 위한 뉴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 소식까지 묶어서 전하는 <오세아니아 위클리>를 제작하지요. <해피 특특>은 화제의 인물을 만나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해외 시청자도 많아요.

12월엔 북섬 중부 대평원에서 <마누카 꿀>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담아볼 생각이예요. 알파카 대형 농장을 찾아 제품 생산 과정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고요. 앞으로 태평양 섬나라를 무대로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예요.

보람과 자부심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오클랜드 한뉴 문화원에 이어 10월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와이우루 국립 육군박물관에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화질의 컬러 사진인데, 1951년에서 53년 사이니까 아마 최초의 컬러 사진일 수도 있어요. 사진전을 보고 친척이나 친구를 찾은 사람도 있으니 이런 게 다 보람이죠.

특히 제가 찾은 새로운 소식을 교민들에게 빠르게 알려 주었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요즘은 방송하기 얼마나 좋고 편리한 시대인지, 라디오도 TV도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방송할 수 있으니 말이죠. 라디오 방송의 생명은 속도성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라디오에서 드라마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했는데, 컴퓨터 한 대,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뉴스를 전할 수 있죠. 바쁘고 쉽진 않지만, 방송을 마치고 나면 왠지 기분이 뿌듯해지는 게 바로 라디오 방송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할 생각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피서 한 번 오세요. 감사합니다.



한글날 특집 기고

한국어 표준발음법의 전통성과 합리성

대학생의 영어 중상위 평준화와 국어 하향 평준화의 현실 앞에서

모든 법과 규범의 규정에서 언제나 첫 조항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바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에서 실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국민이 주인이며 서로 화합하는 나라」인데, 해방 이후 온 국민이 서로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느낄 수 있다.

표준발음법 제1장 제1항은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나는 이 제1항의 정신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나(평성平聲)·랏(거성去聲):말(상성上聲)·쓰(평성)·미(거성去聲)에서 처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새로운 문자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훈민訓民) 올바른 발음(정음正音)을 익히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글은 100년 전의 신조어新造語일 뿐이다.」

아나운서 세계의 전통 발음인 장단음長短音의 기원起源은 중국어 성조聲調인 사성四聲의 이성二聲 축소와 영어와 일본어의 모음 5개, 독일어의 8개에 비해 국어 모음의 수數 21개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어가 서울말이라는 사실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에 많다. 그러나 한 나라 표준어의 조건은 수도가 아닌 품위성과 음악성에 있다는 점을 상기想起하고 싶다.

그 예가 영국은 남부지방, 프랑스는 푸르, 독일은 하노버, 이탈리아는 피렌체, 미국은 백인白人 신교도新教徒 계층의 말이다. 서울말은 600년 왕도王都에 걸맞은 말이다.

표준발음 규정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는 대원칙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예를 들면, 값(가價)에 대하여는 값 값어치 값만 값이 값을 값에에서 [갑 가버치 감만 갑씨 갑쓸 갑씨] 등이 서울말인데,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겹받침인 리의 발음은 체언의 경우 님이[달기] 님을[달글] 등과 같이 모음 앞에서는 리를 모두 발음하지만, 님도 [닥도] 님과[닥파]에서처럼 자음 앞에서는 리를 탈락시키면서 ㄱ만을 발음하는데, 용언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맑고[말고] 맑아[말가]처럼 리 중에서 리이 살고, 늣더니[늣더니] 늣지[늣찌]에서는 ㄱ으로 읽는다.

또한 장음의 단음절單音節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된다. 알다[알:다]가 알아[아라]로, 굶다[굶:다]가 고와[고와]로 된다. 그러나 작다 [작:따]가 작아[자:가]에서처럼 장음이 유지되는 전통도 있다.

한편 맛있다는 현실 발음에서는 [마싣따]로 읽지만, 맛없다에서는 [*마섭따: 비표준발음]로 발음되지 않는다. 이처럼 합리성에 따라서 맛있다 [마딤따](원칙)/[마싣따(허용)]로 복수 발음이 인정되었다.

한국어는 결코 발음이 쉽지 않은 언어이다. KBS 아나운서실의 전통 발음 정신은 한글맞춤법에 나온 표준발음법의

전통성과 합리성의 성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폭이 훨씬 넓고 깊다 하겠다.

KBS한국어연구회 초창기 자문위원 회의에서 ‘한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40%가량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제議題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마치 처음 들어보는 명제命題라는 듯한 자문위원들의 반응에 필자가 실언失言을 하였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한국어 하면 ‘한글’이 떠오르고, ‘한글은 쉽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온 국민이 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아예 무관심해진 것은 아닐까. 세종학당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음이 제의된 반제품半製品(?)의 한글을 무신경하게 보급하고 있다. Language/Horse 말/말, Snow/Eye 눈/눈처럼, 같은 소리글자인 영어는 뜻을 알 수 있으나 한글은 뜻을 나타내는 표의성表意性이 없다. 대신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특장特長이 있다. 이때 나는 서양의 속담 ‘No pain, No gain!’이 떠오른다.

세종대왕께서는 왜 조선의 국시國是인 유교 정신에 어긋나게 붓다의 찬양가讚揚歌와 일대기一代記의 합본合本인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서문을 불교의 교의教義에 맞는 108자로 지으셨을까. (왕실에서는 극락세계 때문에 백성들 몰래 불교를 믿었다.) 음성언어학의 선진국이었던 인도 유학승인 고승高僧들에게 세종께서 한글 창제의 단서端緒를 혹시 발견하셨던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도 세종대왕에 대한 불경죄不敬罪를 짓는 셈이다.

어느 해 한글학회 한 인사의 한글 장음 지키기에 대한 건의 전화 후 당시 KBS 아나운서들은 합리성을 인정하여 장음을 새로운 전통 발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껏 한글학회에서는 발음을 도외시한 채 [세:종대:왕]으로 품위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글날은 오직 ‘글의 날’일 뿐 ‘말의 날’이 아니다. 해방 이후 오늘 날까지 국어 발음 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한글 우월주의를 넘어서 이상화偶像化에 도취된 때문은 아닐까.

우리 국민은 한국어가 외국어와 견주었을 때 어떻게 아름답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언어인지 알지 못한다. 가령 독일어는 장중하며, 프랑스어는 우아하고, 영어가 권위적이라면, 스페인어는 정감과 설득력이 있다. 일본어는 상냥하고 친절하다.

과거 연변방송국에서 실시한 KBS 아나운서실 파견 교육 중 조선족 아나운서가 했던 말. “평양 아나운서들의 말투가 다분히 전투적이었는데 비하요 서울 KBS 아나운서들의 말씨는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명제命題인지 모르겠으나 품위성과 음악성은 한때 KBS 아나운서 세계의 국어에 대한 전통이었다. 필자가 표준한국어발음 사전을 펴낼 수 있었던 힘은 KBS 아나운서의 전통발음법을 도제徒弟 교육으로 익혔기 때문이었으리라.

KBS 아나운서의 표준발음법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요약해본다.

전통성

아나운서 교육에서 맨먼저 배우는 숫자 2, 4, 5와 둘, 셋, 넷, 열은 [이:사:오:, 둘:셋: 넷: 열:]처럼 길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핸드폰의 010/공일공과 0.1/영뽀일을 기호일 때는 [공], 숫자일 때는 [영]으로 읽고 있다. 이 명제가 바로 붓다가 발견했다는 공소사상이다.(최근 어느 원로 국어학자께서도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기에 다소 긴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우선 이는 불교계의 책임이다.)

BC 6세기 ‘공공이 만물의 실상實相’이라는 철학을 인도 사회가 받아들이는 풍토에서 수학자들은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철학의 공소사상을 수학에 투사投射하여 천년 후인 AD 6세기 인도 땅에서 ‘0’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산모產母가 열 달 후에 잉태된 아기를 낳은 것과 같다.

기존의 9개 숫자에 ‘0’이 편입되는데, 편입생은 왕따를 당하는 법이지만, ‘0’은 어떤 수로 나눌 수 없고 아무리 큰 수라도 곱하면 Zero가 되면서 숫자의 왕이 된다. 이는 법왕法王이신 붓다의 깨달음인 까닭이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야구, 축구의 운동 기구인 둥근 모양의 Ball이 들어왔을 때 짧은 발음의 공공과 대비되는 쌍둥이 말로 [공:]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대대는 대구大邱와 대전大田 대구大口(생선)만 짧고, 그밖의 어휘는 대학大學 대통령大:統領 대문大:門처럼 장음이다. 정正은 정월正月만 짧고 그밖에는 정확正:確 정통파正:統派 정도正:道처럼 길게 읽는다. 장관長:官 장녀長:女 장성長:成처럼 성조聲調가 길며, 길다는 뜻일 때는 장음長音 장기間長期間처럼 오히려 발음은 짧다. 단短은 뜻은 짧지만 단음短:音 단편短:篇 발음은 오히려 길다. 크다의 반대어인 작다는 장음 [작:다]지만, 가족 서열에서 두 번째 아래의 사람은 작은 아버지/아들/누나/며느리처럼 짧게 발음한다.

[감:수:박 딸:기/사과 배 포도] [까:치/까마귀] 밭대밭:따/고/-찌] 째다[째따/-찌(*째따/-찌: 비표준발음 호남 방언)] 맑다[막따/-찌(*말따: 비표준발음) 맑고[말꼬/-가]

합리성

㉠ 장단음(대표적인 예)

적:다/적다(쓰다) 없:다/업다, 잇:다/있다/잇다 건조建:造/건조乾燥 성인聖:人/성인成人, 정嬢:/정丁, 조趙:/조曹, 유柳:/유劉/유俞, 전역轉:役[저:녁]/전역全域[저:녁]/전역前驛[전:녁]

㉡ ㄱ/ㄱ

제수祭:需/弟:媿/재수再:修/재수(운運), 메달/매:달(每月), 세:집/새:집/새 집, 제일第:一/재일在:日, 체(아는~)/체(골프~)

㉢ 예사소리와 된소리

고가高架(~ 사다리)/고가高價[고:까], 문과文科(~에 급제)/문과文科[문:파]

(~대학), 삼일장三日葬/삼일장[사:밀:장] (양평의 ~), 상권上:巷/상권商圈 [상:권] [전철역 근처 ~)

동同은 2음절이 뜻이 있는 실사實辭일 때는 동화同:化, 동정同:情, 동기同:期처럼 장음이 된다. 2음절에 뜻이 없는 허사虛辭일 때는 동화同和(~통신), 동창同窓, 동갑同甲처럼 단음이 된다. 이는 합리성에 그 전거典據를 두었다.

조물주의 선물인 성대聲帶라는 최고의 악기樂器로 국어의 연주(recital)를 이상理想으로 삼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 KBS 아나운서 전성기 시절, 당시의 아나운서들이 미감美感의 언어를 실현하기 위해 KBS의 전통발음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장기범張基範 아나운서라는 중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계진 아나운서가 제정한 ‘장기범상’은 KBS 아나운서의 자랑으로, 이상의 참 뜻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문화, 동아, 서울방송 등 민방民放이 생기면서 이러한 KBS의 전통은 최계환 선배님, 전영우 선배님, 이계진 선배께서 그 맥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는 싸우는 장면의 중계방송을 듣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이 한국 방송의 현주소이다.

항가나 고려가요 같은 연구만이 학문으로 인정받는 국어학계의 상고尙古주의 풍토에서 오늘날 국어학자들의 국어 발음에 대한 침묵은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과소 평가의 우려 때문은 아닐까.

국어 발음 교육 대신 영어 Phonics (발음중심어학교수법)에 몰두한 결과, 초등학교생들도 아는 인싸(Insider)/인기 있는 학생 글로벌(Global)/글로벌 받는 벌(반성문) 등 유행어의 양산量産과 대학생들의 영어 중상위 평준화, 국어 하향 평준화가 현실이 되었다.

대국어학자이셨던 이기문李基文 선생님께서 혼잣말처럼 ‘한마디로 참담할 뿐이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라고 국어 현실에 대해 탄식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 있다.

NHK 아나운서들의 교육 커리큘럼이 50년 전과 똑같다’는 사실에 힘입어 이 글을 쓸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아나운서들은 국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돌이 옥玉의 행세를 하는 현 한국 방송의, 그레샴의 법칙이 상식이 된 지 오래된 풍토에서 저절로 나오는 한탄의 말. 「느끼면 비극이요 생각하면 희극이다.」



이규항(전 KBS)

편집자 주: ‘이 글을 마지막으로 국어에 대한 글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쓴 글이기에 필자의 우리말 관련 글로는 절필絶筆이 될 듯하다. 필자는 지난 6월 20일, 중앙중고 제112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한국어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중고등학교 교우회(회장 채정성)로부터 제33회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선정되었다.

7월 18일자 동아일보에는 아나운서이자 국어학도로 살아온 그의 삶을 소개하는 전면 인터뷰 기사도 실렸다.